

100년 역사 거슬러 광주 상수도 여행

광주역사민속박물관, 12월13일까지
고대부터 현재까지 '도시와 물' 기획전
트릭아트 등 물 관련 다양한 체험도

신화에서 그려지는 물은 생명과 부를 상징한다. 물은 생명의 원천이며, 풍부한 수량을 보유한 사회는 부를 일궈냈다.

서사무가 '바리공주'에는 바리공주가 자신을 버린 부모의 병을 고치기 위해 서천지역으로 떠나는 장면이 나온다. 약수를 구해야 부모를 살릴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서 보듯 우물의 탄생은 사회의 토대를 닦는 필수조건이다. 우리나라는 청동기시대부터 우물을 사용한 흔적이 있다. 오늘날에까지 우물을 배경으로 다양한 이야기가 탄생되고 전해진다.

광주에서는 1920년 무등산 중심사 계곡에 제1 수원지를 만들면서 상수도 역사가 시작됐다. 올해는 광주 상수도 100주년이 되는 의미있는 해다.

광주역사민속박물관은 광주 상수도 100년 역사를 조명하는 '도시와 물' 기획전을 연다. 12월 13일까지 박물관 기획전실에서 개최하는 이번 전시는 고대 사회부터 현재까지의 물 관련 생활사를 망라한다. 아울러 광주 상수도 100년 역사를 집중 조명하는 동시에 물 사용에 대한 미래까지도 제시한다.

총 3부로 구성된 전시는 광주 상수도(상수도) 역사와 물 관련 생활자료 100여점을 선보인다.

제1부 '상수도 전사(前史)-우물에 대하여'에서는 상수도 도입 이전의 우물의 역사를 살핀다. 동림동 유적에서는 물과 관련한 도수관과 우물 등이 출토된 적이 있다. 이번 전시에서는 1500년 전 광



광주 상수도 100년 역사를 만나는 '도시와 물'전이 12월 13일까지 광주역사민속박물관에서 열린다.

주에 살았던 사람들의 물 사용 흔적을 더듬어 본다.

제2부 '상수도와 광주'는 1900년대 초 우리나라에 상수도가 도입된 배경과 여정을 되짚는다. 1920년 제1수원지를 건설하며 출발했지만 대부분 해택이 일본인에게 돌아가 차별과 배제의 대명사로 여겨졌던 역사부터 제3·4수원지 건설, 동북담 공사 등 상수도 여정을 문헌자료와 홍보자료를 통해 살핀다. 특히 1971년 2월 옛 전남도청 앞 분수대에서 진행된 동북물 통수식은 더 이상 급수난을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는 상징을 담고 있다.

그러나 1988년에는 광산구가 광주로 편입되면서 새로운 수원확보가 절실했다. 이에 1994년부터는 주암댐 취수를 결정하게 되면서, 현재 광주 수돗물 생산의 절반을 담당하고 있다.

광주와 수도의 관계를 면밀하게 들여다볼 수 있

는 공간도 있다. 제3부 '도시 광주와 물'은 빗고을과 수도의 다양한 관계를 조명한다. 여기에서는 1970년대 후반까지 일상이었던 급수난 실태를 배급 급수 당시 사용했던 양철 물통, 수도계량기, 수도관 등의 자료를 통해 가늠할 수 있다.

전시회 각부 사이에는 다양한 체험거리도 마련돼 있다. 로마 수도고 트릭아트 존, 우물펌프, 물지게 등 물과 관련한 다양한 자료는 흥미를 제공한다.

김오성 광주역사민속박물관장은 "물에 대한 기본적인 관심이 미래의 물에 대한 가치를 든든하게 할 것"이라며 "물과 관련한 다양한 즐길거리를 통해 뜻깊은 시간을 갖기 바란다"고 말했다.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예방수칙에 따라 관람이 가능하다. 문의 062-613-5365.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522년 역사' 빈 소년합창단, 26일 사상 첫 온라인 월드 투어

이용료 8천원... 10월3일까지 관람

522년 역사를 자랑하는 오스트리아 빈 소년합창단이 오는 26일 오전 2시(한국시간) 사상 처음으로 온라인 월드 투어를 연다.

독일 클래식 스트리밍 플랫폼 '아이디지오'(Idagio)를 통해 열리는 공연 제목은 '프롬 오스트리아 워드 러브'(From Austria with Love).

아이디지오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이나 웹 사이트에서 결제하면 시청할 수 있다. 가격은 5.9유로

(한화 약 8천원)이며, 결제 후 다음 달 3일 오전 3시까지 볼 수 있다.

공연에는 4개 합창단팀(모차르트, 슈베르트, 브루크너, 하이든)이 모두 참여하는데, 빈 소년합창단 전원이 한 무대에서는 경우는 흔치 않다.

빈 소년합창단은 베르벤 교향곡 9번 합창 중 '환희의 송가'를 시작으로 베토벤, 슈베르트, 모차르트, 요한 슈트라우스 등 오스트리아를 대표하는 음악가들의 곡을 선보인다. 빈 소년합창단에는 현재 3명의 한국인이 단원으로 활동 중이다. /연합뉴스

'광주학 콜로키움' 온라인 생중계 광주문화재단, 28일 박경섭 발표

광주전 과거와 현재를 비교할 수 있는 세미나가 열린다. 광주문화재단은 오는 28일 오후 4시 '근대 광주 사람들'을 주제로 제3회 '광주학 콜로키움'을 온라인으로 생중계 한다.

박경섭 전남대학교 5·18연구소 전임연구원이 '도시화 시대, 광주전과 사람들'을 주제로 발표하며 윤현석 도시지역개발학 박사가 좌장을 맡는다. 박 연구원은 주제 발표에서 다양한 사진자료와 문헌을 통해 광주전의 과거와 현재를 살펴보고 광주전 지천인 동계천과 서방천의 복개 전후를 조명할 예정이다.

이번 콜로키움은 무관중 스튜디오에서 진행하고 '광주문화재단TV' 유튜브 채널로 실시간 생중계할 예정이다. 문의 062-670-7434.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김천일·김억 작가 실경산수 한자리에

광주시립미술관, 10월 18일까지 'Re-Play 남도전문록' 전

'남도 풍경의 진수를 만나다.'
광주시립미술관(관장 전승보)은 지역 미술사를 아카이빙하는 프로젝트로 해마다 지역 중견 작가들의 삶과 작품 세계를 조명하는 기획전을 꾸준히 열었다.

올해는 중진 작가 초대전 'Re-Play 남도전문록'(10월18일까지)을 통해 한국화가 김천일과 판화가 김억의 작품 세계를 탐구한다. 두 사람은 너른 들과 강, 바다가 어우러진 남도 땅을 기행하며 다양한 실경산수를 화폭에 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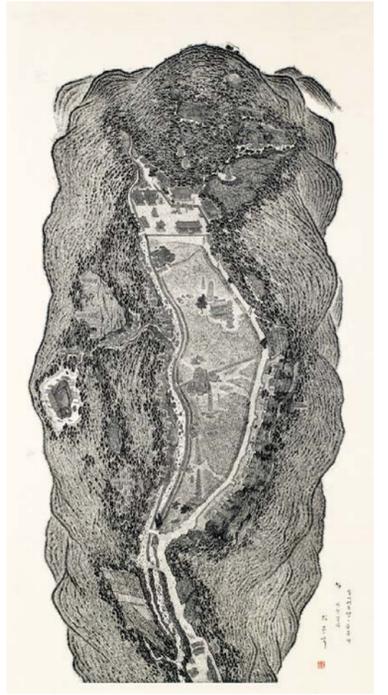
서울대 미술대학 회화와 및 동대학원을 졸업한 김천일 작가는 전통을 기반으로 산수화의 현대적 재해석에 몰두해 왔다. 김 작가는 자신이 그리고자 하는 장소를 수차례 발로 밟으며 오랜 시간 공을 들여 면밀히 관찰하고 탐구한 후 이를 작업에 반영한다.

작가의 남도에 대한 끊임없는 관찰과 반복 작업을 보여주는 '월남리' 연작은 8폭 병풍에 월남리가 위치한 월출산의 장엄한 산세와 그 아래 안긴 마을 풍경을 섬세하고 정밀한 점묘와 다양한 색의 배치로 보여주는 작품이다. 국립현대미술관 소장품 '월비마을'은 수묵화로 표현한 월출산과 월비마을의 정밀한 묘사가 일품이며 '대흥사 북미륵암 마애여래좌상'은 초기 인물화로 활동한 작가의 관심이 반영된 작품으로 불상의 입체감을 노란색과 파란색의 색채 효과를 이용해 표현했다.

김억은 홍익대학교 동양화와 및 동대학원을 졸업했으며 조각칼로 새겨낸 남도의 풍경, 자연, 역사, 생활모습을 담아내고 있다. 그는 작품을 제작하기 위해 국도를 돌아다니고, 그 풍경을 기행문으로 기록한다. 그의 작품에는 남도의 산맥과 바다를 개발해 만든 도시와 시골의 활력 등 자연과 어울려 위치하거나 터전에 맞게 변용된 지역의 다양한 모습이 나타난다.

이번 전시에는 9m가 넘는 파노라마 연작 '남도 풍색'이 출품됐다. 해남부터 보길도까지 120km 당사를 다녀온 작가의 기행문을 기반으로 제작된 작품으로 두륜산, 달마산 미항사 등 남도 풍경을 압축해 표현해냈다.

임진왜란의 현장인 명랑해전의 격전을 그린 '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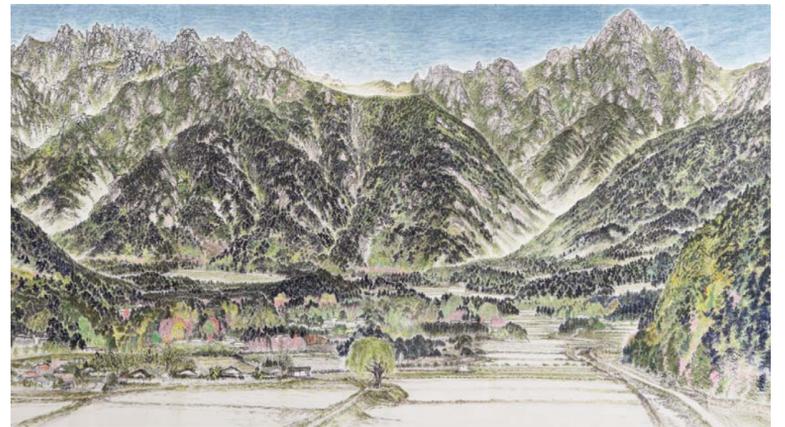


김억 작 '일어서는 땅 운주사'

남 우수영, 울돌목'은 진도대교와 어업 중인 어선들 아래 명랑해전 장면을 동시에 담아 역사와 현재가 공존하는 장면을 표현하고 있으며 조선시대 고지도 형태를 차용한 '일어서는 땅 운주사'는 천불천탑과 와불로 유명한 운주사의 전경과 석탑을 세밀하게 새겼다.

전시에서는 작가 소개와 작품 제작배경 등을 설명하는 인터뷰 영상도 만날 수 있다. 관람예약제를 통한 온라인 또는 전화 접수 후 미술관 전시 관람이 가능하며 미술관 홈페이지에서 전시 영상과 인터뷰 영상으로도 만날 수 있다. 월요일 휴관.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김천일 작 '월남리9'

SINCE 1982

각국 보청기 전문 A/S센터 상표등록 제2549335호

2015~2019 대한민국 소비자만족대상 소비자브랜드부문 [5년 연속] 수상
2016 미국 라스베이거스 CES 무선 엑세서리 [혁신기술상] 수상
2017 미국 빅 이노베이션 어워드 (BIG Innovation Award) [혁신상품부문] 수상

“인터넷 검색창에 **국제보청기** 를 보세요”

국제보청기

- 필요한 소리만 똑똑히 들립니다.
- 작은 사이즈로 착용시 거부감이 없습니다.
- 정직한 우수상품 가격부담이 없습니다.

본점 서석동 남동성당 옆 062) 227-9940
062) 227-9970

서울점 종로 5가역 1층 02) 765-9940

순천점 중앙시장 앞 061) 752-9940

모던 슬라브옥상 칼라강판 지붕공사 및 스틸방수

아파트, 빌라, 원룸, 주택, 상가건물, 대형빌딩 등(슬라브 옥상) 시공

옥상지붕공사
슬라브 주택, 데스리 및 한옥 등은 칼라강판 지붕공사

옥상스틸방수
갈라지고 물이 새는 옥상바닥
[겨울의 차가운 냉기] [여름의 뜨거운 열기]
방수와 단열 한번에 해결!

모던건설 (트윈스틸) 시공 문의 062)531-3530, H.010-9229-3530 옥상지붕공사 및 스틸방수 무료견적 광주·전남 같이 하실 분 모십니다. 디자인 등록 제30-0934833호 제30-0949873호 특허청